

역사교육 이면에 드리워진 한국현대사의 모습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만큼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 교육 분야에서 역사만큼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만은 아닐 터이다. 지극히 고전적인 의미, “역사는 사회의 뿌리”라는 말은 오히려 진부하기까지 하다. 그보다 ‘역사의 반복성’ ‘현재는 과거의 반영’이라는 말이 더 현실적으로 들린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의 역사 교육은 통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이용돼왔

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지만, 민주화를 위해 애썼던 이들도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역사를 강조했다. 해방 전후부터 최근까지 역사 교육의 변천사를 토대로 현대사를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한중씨가 쓴 ‘역사 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는 역사교육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 23가지를 묶었다.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부각되었다. 재야사학자도 불리는 학자들이 국사 교과서의 상고사가 축소, 왜곡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촉발시켰다. 20세기의 역사교육은 기존의 사회에 인간을 동화시키는 교육, 권력 강화를 위해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는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 21세기 들어서는 일본 우익교과서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역사교육이 국가간의 역사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역사 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김한중 지음



해방 직후 ‘국민학교’라는 현판이 걸린 교문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이처럼 저자는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본다. 그 관점의 바탕에 정치·사회적 상황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은 적잖은 휘발성을 내재하고 있다. 기본 사실조차 잘못 기술된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정권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마저 갖게 한다. 21세기는 다문화 사회다. 앞으로의 역사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와 성찰이 필요한 때다. 무엇보다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는 사실을 한번쯤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책과함께> 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부각되었다. 재야사학자도 불리는 학자들이 국사 교과서의 상고사가 축소, 왜곡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촉발시켰다. 20세기의 역사교육은 기존의 사회에 인간을 동화시키는 교육, 권력 강화를 위해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는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 21세기 들어서는 일본 우익교과서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역사교육이 국가간의 역사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저자는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본다. 그 관점의 바탕에 정치·사회적 상황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은 적잖은 휘발성을 내재하고 있다. 기본 사실조차 잘못 기술된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정권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마저 갖게 한다. 21세기는 다문화 사회다. 앞으로의 역사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와 성찰이 필요한 때다. 무엇보다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는 사실을 한번쯤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책과함께> 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주주의 확장이 진정한 발전의 목표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 지음



희정의를 위한 저항과 투쟁이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가 내세우는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이며, 모든 이가 가급적 평등한 자유를 누리는 사회정의에 맞닿아 있다.

아시아 최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의 ‘마더 테레사’ 아마티아 센(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자유로서의 발전’을 펴냈다.

책은 아마티아 센 교수가 평생에 걸쳐 추구한 문제의식의 결정판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장이 진정한 발전의 목표라는 사실에 초점을 둔다. 역량의 회복과 균형 잡힌 성장만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안이라는 의미다.

그의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발전 모델은 지난날 개발독재를 겪어야 했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시기, 민주화와 사

한국사회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사회 제반 분야에 개발독재의 그림자와 성장성배의 폐해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아마티아 센 교수는 이런 한국사회가 온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어떠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제시한다. <갈라파고스> 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독서야말로 행복한 가정·회사 만드는 밑거름

‘세종처럼 읽고 다산처럼 써라’

다이애나 흥 지음



서도 외로움과 싸우며 즐기게 글을 썼다. 누구나 하루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다. 세종과 다산도 마찬가지였다.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57쪽 한글날을 맞은 자가 이를 전이다. 한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독서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세종과 다산을 모티브로 독서와 글쓰기 습관을 자기계발 교육 대안으로 찾자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독서경영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다이애나 흥이 펴낸 ‘세종처럼 읽고 다산처럼 써라’는 세종과 다산 두 인물의 공통점을 주목한다. 저자는 두 인물이 지니고 있던 세 가지 덕목, 즉 자극성, 백성사랑, 절대독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를 찾아낸다. 저자가 보기에 세종은 읽기, 다산은 쓰기의 최고봉이었다. 세종은 무작정, 반복적으로, 가슴으로 읽었고 토론했며 소통했다. 정약응은 귀양이라는 시련 가운데

“그동안 독서야말로 행복한 회사와 가정을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외치며 독서 향기를 나누고자 불철주야 뛰어다녔다... 하지만 내가 읽었던 지식이나 정보는 대부분 우리 것이 아니었다. 링컨, 나폴레옹, 빌게이츠, 손정의 등 외국의 위인들에 대한 일화나 성공 사례에 목숨 걸고 매달렸던 게 사실이다. 이 책을 쓰면서 우리 역사에 이들만큼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아이북스> 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반짝이는 동심으로 만나는 일상들

‘파도는 연고처럼’

김해임 지음



유의 시각과 맞물려 잔잔한 울림을 준다. “아이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시를 쓰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학교 현장은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고,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현재 초등학교 교감이자 시인인 광주 매곡초교 김해임 교감이 첫 동시집을 펴냈다.

김 시인이 펴낸 ‘파도는 연고처럼’은 학교 현장과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을 반짝이는 동심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나와 가족, 나와 이웃, 나와 사물과의 관계가 정감어린 언어로 그려져 있다.

김 시인의 작품에 드리워져 있는 일관된 정서는 긍정과 배려다. 여기에 따뜻하고 순박한 동심이 시인 특

김 시인은 2009년 ‘아동문예문학상’과 2012년 ‘새벗 문학상’으로 등단했다. 이번 시집은 조선대 미대에 재학 중인 딸이 직접 그림을 그려, 시각적인 효과뿐 아니라 நட담의 의미가 있다. <아동문예> 1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상처투성이 현실, 교실 내 신분제도

‘교실 카스트’

스즈키 쇼 지음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비유했다.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말한다.

집단 괴롭힘, 따돌림, 학교 폭력 등 학교 문제와 그로 인한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모두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동경대 대학원 교육학부 박사과정 에 있는 스즈키 쇼가 펴낸 ‘교실 카스트’는 교실 내 신분제도를 파헤쳐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교실 내에서 동급생끼리 공유하고 있는 지위의 차이를 세계 역사상 가장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은

스즈키 쇼는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과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실 내 신분제도에 대해 인터뷰했다.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해 학교문제, 교육의 미래를 통찰한다. <베이지북스> 1만3000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인생 수업’

범론 지음



잡고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는 데, 자기를 긍정하고 현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가라고 조언한다.

“행복, 따로 준비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행복하세요.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범론 스님의 혜안이 담긴 책 ‘인생 수업’이 나왔다. 죽은즉살을 통해 세대를 넘나드는 인생의 멘토로서 매마른 세상에 행복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범론 스님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죽비 같은 인생의 지혜를 들려준다.

책을 통해 스님은 힘겨운 시대, 팍팍한 현실을 헤쳐 나가야 하는 중년 이후 노년들에게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한다.

흔히 나이가 들면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에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걸까? 스님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 없이 자기가 만족하면 그게 좋은 인생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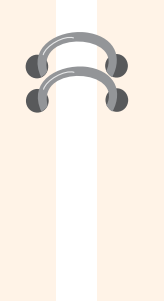
어떤 일을 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인생의 주인공인 ‘나’로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자신을 괴롭히며, 행복해야 할 내 인생을 내가 내팽개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따끔하게 충고하고 있다. <휴> 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신간

▲진시황 강의=중국 최초 통일제국을 건설한 절대군주 진시황과 그의 제국이야기. 중국 CCTV ‘백가강단’의 국보급 석학 왕리훤 교수가 치밀한 고증, 탁월한 통찰, 현대적 해석으로 밝힌 진시황의 강력한 통치력에 숨겨진 비밀, 영웅적 리더십, 빼어난 지략, 강력한 국가경영 전략으로 통일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군주 진시황의 일대기를 완벽하게 재조명한다. <김영사> 2만2000원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지난 수년간 현장에서 ‘한국 여성사’ 관련 강의를 해온 저자들이 7년간 서로의 원고를 검토하고 토론, 의견 조율을 거쳐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를 출간했다. 열두 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기존의 역사 해석을 뒤집거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문화사와 일상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푸른역사>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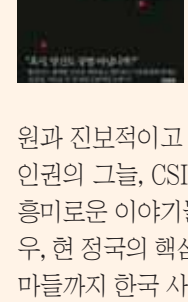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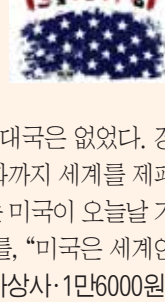
▲대한민국에서 감정노동자가 살아남는 법=우리는 모두 감정노동자다. 어딘가에서는 고객이 되고 어딘가에서는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가 된다. 감정노동자인 동시에 고객인 우리는 불량고객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불량고객이 되어 또 다른 감정노동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책은 곳곳에 깔려 있는 불량고객과의 문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해안을 담았다. <새로운 제안>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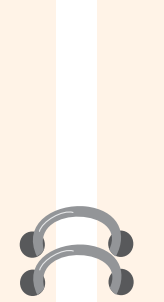
▲을을 위한 행진곡2=“을(乙)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원 31명이 쓴 갑을관계 분석서.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그늘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을의 사색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책은 상상협력하는 갑을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쟁’ 기록과 함께 이들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담았다. <비티비티> 1만5000원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의 ‘훔친 미국사’ 파노라마.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없었다. 경제와 군사, 라이프 스타일과 언어는 물론 대중문화까지 세계를 제패하며 수많은 나라와 국민을 사로잡은 미국. 저자는 미국이 오늘날 거대한 제국으로 패권을 지위를 얻게 된 주요 이유를, “미국은 세계인의 마음을 훔쳤다”는 말로 압축한다. <인물과 사상> 1만6000원



▲공범들의 도시=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와 국내 유일의 전문 인터뷰어가 나눈 대화 기록. 보수주의자이며 범죄 심리 전문가인 표창원과 진보적이고 대중적인 성향의 지식인 지승호의 대화는 연예인 인권의 그늘, CSI 신드롬과 CSI 이펙트, 범죄 영화에 대한 분석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에서 사법 정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인 전란에 우, 현 정국의 핵심 이슈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정치적인 테마를까지 한국 사회 전반을 관통한다. <김영사> 1만4000원



▲이이화 역사 할아빠 지기가 이야기=우리 역사와 풍속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역사학자 이이화가 구수한임 말체로 손주들에게 얘기하듯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시리즈는 집과 마을, 궁궐 등의 지기가 신을 섬기는 토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다. 궁궐 지기가 해태, 마을 지기가 대장 당산신 등을 만날 수 있다. <파랑새> 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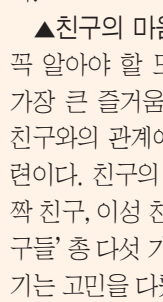
▲이이화 역사 할아빠 지기가 이야기=우리 역사와 풍속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역사학자 이이화가 구수한임 말체로 손주들에게 얘기하듯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시리즈는 집과 마을, 궁궐 등의 지기가 신을 섬기는 토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다. 궁궐 지기가 해태, 마을 지기가 대장 당산신 등을 만날 수 있다. <파랑새> 1만1000원

▲책 만드는 이야기, 들어볼래? =한 권의 책이 독자들과 만나는 과정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손길이 필요하다. 나무를 생산하는 사람부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화가, 출판사의 편집자, 제작자, 출력소 사람들, 창고에서 책을 관리하는 사람, 서점에서 책을 파는 사람까지...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려준다. <사계절> 1만1000원



▲노아 아줌마의 아재 발 살리기 작전=“곰 흡수가 날 거야”라며 집 앞에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드는 아저씨, 마음이 급해진 노아 아줌마는 바로 ‘아재 발 살리기 작전’에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상상을 입혔다.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한 품을 배우고 느끼게 해주는 그림책이다. <애들트리태일즈> 1만2000원

▲친구의 마음을 읽는 법 51=‘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교양’ 시리즈. 학교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지만 괴로움이 되기도 하는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수많은 고민을 갖기 마련이다. 친구의 유형을 ‘처음 만나는 친구, 단짝 친구, 이상 친구, 나를 싫어하는 친구, 반 친구들’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해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고민을 다뤘다. <유포스> 1만1000원



▲친구의 마음을 읽는 법 51=‘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교양’ 시리즈. 학교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지만 괴로움이 되기도 하는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수많은 고민을 갖기 마련이다. 친구의 유형을 ‘처음 만나는 친구, 단짝 친구, 이상 친구, 나를 싫어하는 친구, 반 친구들’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해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고민을 다뤘다. <유포스> 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